韓國의 佛教服飾에 關한 硏究(一)

—傳存遺物을 中心으로—

任 榮 子

I、緖 論

우리 韓國은 오랜 歷史를 가진 나라이다。

그러기에 裏面에 內在한 宗敎、思想은 그 흐름이 깊고、表面에 露出한 文物制度는 그 폭이 넓다。

過去 數千年동안 이 나라의 精神世界 내지는 外的의 生活을 主導해온 것으로는 東洋의 三大思想인 儒·佛·道 三敎를 들 수 있다。

그러나 道敎思想은 歷史的으로 儒·佛에 比해 敎勢가 크게 떨치지는 못하였고、극히 現實主義인 유교와 극히 超現實主義인 불교가 서로 交代하여 한번은 隆盛하고 한번은 浸滯하면서 思想的 主流를 이루었으며 이 思想的 兩大脈絡위에서 韓國의 文化는 꽃피고 歷史는 展開되었다。

그러므로 韓國文化는 바로 儒佛의 文化로서 韓國精神史위에서 佛敎思想이 차지하는 位置는 莫重한 것이며 따라서 韓國社會史속에서 佛敎制度가 점하는 比重 또한 큰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歷史나 文化 또는 宗敎나 思想을 연구함에 있어 물론 內的 世界인 思想史 그 自體를 연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外的 生活인 制度史에 관해서도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表層의 生活樣相인 制度、慣習、傳統、儀式등은 바로 그 深層의 精神차원의 表出이 되는 때문이며

또한 宗敎的 儀式이나 制度는 곧 그 時代나 社會의 모습을 反映하는 거울의 役割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佛敎에 대한 연구는 一般的으로 宗敎 및 思想的인 面에서는 널리 다루어지고 있으나 佛敎의 制度 및 儀式에 관한 연구는 조금 저조한 傾向이 없지 않다。

佛敎服飾은 一般服飾과 달리 一敎祖의 精神이 담긴 宗敎人의 特殊한 衣服으로서 用度가 非大衆的이며 非社會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 面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대중성이 결여된 獨特한 복장이라 하더라도 그 나름의 傳統과 歷史가 있는 것이다。

즉 불교 成立 當初로 비롯하여 中國이나 우리나라 傳來以後 歷史的 背景과 地理的 條件이 다름에 따라 그 受容이나 시행 과정에서 파생된 差異와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에 筆者는 佛敎를 制度史的인 측면에서 특히 그 服飾인 法衣를 中心으로 하여 考察하려고 한다。

硏究範圍는 當初 印度 法衣의 基本形態、中國法衣의 特質、韓國法衣의 變遷등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硏究方法은 文獻에 나타난 法衣、遺物로 傳存되는 法衣、現在着用하는 法衣로 나누어 考察하며、

硏究目的은 眞理는 古今에 변할 수 없는 것이 法則이지만 制度는 根本精神을 喪失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時代的 상황에 맞게 適切히 改善되고 補完되어야 한다。

이제 大衆社會 機械時代가 이룩된 지금 아무리 出世間的인 宗敎라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現實과 交離된채로 있을 수만은 없다。

좀더 적극적인 立場에서 現實과 調和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筆者는 佛敎의 衣制의 史的 考察과 아울러 現存하고 있는 法衣를 考證하므로 해서 佛敎服飾의 보다 合理的인 制度의 구체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게 하려고 한다。

Ⅱ、佛敎成立當初의 法衣

一、佛敎의 敎理

佛敎는 印度迦毗羅國 淨飯王의 太子 釋迦牟尼가 唱導한 思想이다。

釋迦는 일찌기 人生의 無常을 느끼고 生死苦樂의 根源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榮華를 등지고 出家修行한 끝에 一切의 生死苦樂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이 짓는 것이며 한 생각 돌이켜서 마음이 다시 생각이 없는 곳으로 돌아갈때에 權勢와 富貴, 是非, 善惡, 生死가 다 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宇宙의 主體도 마음이요 一身의 主體도 마음으로서 이 宇宙萬有의 根本核心이 마음이라는 것을 覺破하고 난 釋迦는 이 現象界를 한낱 妄境인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처럼 여기고 이 헛것 빈껍데기 속에서 이것이 實인줄 마음을 迷하고 煩惱忘想에 사로 잡혀 一生을 苦海에서 헤매는 衆生이 안타깝게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衆生濟度에 나서서 根機에 따라 혹 바로 心法을 傳하기도 하고 혹 敎理를 說하기도 하여 四十九年을 敎化하니 이것이 後日 禪이 되고 敎가 되었다。

그러므로 明心見性하여 無上의 正覺을 이루어 衆生을 널리 濟度하는 것이 佛家의 宗旨이다。

二、法衣의 義意

法衣를 梵語로는 Kaśāya(袈裟)라 하며 律文典語로는 支伐羅인데 佛敎를 修特하는 僧의 服裝인 三衣의 通稱이다。

法衣의 義意를 『行事抄資持記』에는 「첫째는 추위나 더위를 막기 위함이요, 둘째는 羞部를 가려서 慚愧心을 없애기 위함이요, 셋째는 마음에 나가 乞食하기 위함이요, 넷째는 慈善을 行하기 위함이요, 다섯째는 威儀가 淸淨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다섯가지 意味가 있음을 말하였다。

파리語로는 三衣를 三支縛羅라 부르는데 體賤、色賤、刀賤등 三種賤의 意味가 內包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보면 當初의 法衣는 호사를 위해 옷을 입는 俗人의 虛禮, 虛飾이나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外道의 兩極을 止揚하고 身體保護의 基本條件을 갖추므로서 修行人으로 하여금 中道를 따르게 하려는데 그 根本精神과 本來 義意가 있음을 알수 있다。

즉 뒤에 法衣가 中國에 傳來된 以後 佛敎를 닦는 사람의 옷이라는 뜻에서 道服, 世俗을 出離한 사람의 옷이라는 뜻에서 出世服, 如法하다는 뜻에서 法衣, 六塵을 여읜사람의 옷이라는 뜻에서 離塵服, 煩惱를 덜어주는 사람이 입는다는 뜻에서 瘠瘦服, 染着을 여임이 蓮華같다는 뜻에서 蓮華服, 五正色을 피한 不正의 間色이라는 뜻에서 間色服, 慈悲를 행하는 사람의 옷이라는 뜻에서 慈悲服, 袈裟의 條相이 世間의 田疇와 같고 또 그 德이 世間의 福田이 되어 供養을 받는 다는 뜻에서 福田衣 모양이 이부자리와 같다는 뜻에서 臥具, 또는 敷具등 여러가지로 해석되어 넓은 意味로 쓰였다。

三、法衣의 發生

法衣는 鉢盂와 함께 出家 受戒人이 具備하는 最初의 基本條件이다。

當初에 法衣가 發生하게 된 直接的인 動機는 古代 印度, 旣成의 九十六種 外道들이 득실거리는 異端의 渦中에서 하나의 새로운 敎團으로 出帆한 佛敎가 차츰 그 信奉者와 趨從人이 늘어남에 따라 修行集團으로서 俗人과 다른 어떤 出世間的 制度의 制定이 必要하고 또한 外道的 敎派들과 佛敎敎徒를 區分하기 위해서는 佛敎的 制度의 定立이 要請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三衣가 比丘의 定式服裝으로서 制度化된것은①

「釋迦가 一、二五〇의 比丘를 데리고 毗舍離에서 菴婆羅婆提로 부터 供養을 받고 나오다 露地에 앉아 있을 때, 初夜에는 一衣 즉 五條(安陀會 : Antravāsa)만 입었다가 中夜에 조금 寒氣를 느껴 二衣 즉 七條(鬱多羅僧 : Uttarāsamga)를 입고, 後夜가 되니 다시 더 寒氣를 느껴 三衣

즉 九條(僧伽梨 : Samghāthi)를 입었는데 그 이후로 석가는 三衣만 가지면 추위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比丘를 모아놓고 三衣이상은 갖지 말라고 제한한데서 비롯되었다」②고 한다。

그러므로 當初의 法衣는 먼저 淸淨한 行狀을 갖추어 修行者다운 態度를 나타내 보이고 다음은 九十六種의 外道들과 區別되게 하려는 意圖에서 制定된 것으로 推斷할 수 있다。

四、法衣의 形態

法衣는 割截한 方形의 적은 천조각들을 모아 꿰매어 形態가 밭이랑과 같다。

『四分律』에 의하면

「어느때 世尊께서 王舍成으로 부터 出發하여 南方으로 遊行하시다가 밭이랑의 方正함을 보시고 이는 世間의 福田이니 出世間의 福田인 僧伽의 衣服도 이와같이 만들라고 阿難에게 命하였다」③한다。

『增輝記』에는

「世間의 밭이랑은 嘉苗을 生長시켜 形命을 기르나 法衣의 田은 三善의 싹을 키워서 法身慧命을 기른다」고 하였다。

이 田相은 縱線과 橫堤로 되어 있는데 그 세로의 線을 條라 부르고, 그 條數의 크기에 따라 大衣, 中衣, 小衣로 나눈다。

條數는 二五條부터 二三條, 二一條, 一九條, 一七條, 一五條, 一三條 一一條, 九條, 七條, 五條에 이르는데 二五條에서 부터 九條까지가 大衣 즉 僧伽梨로서 外衣이며, 七條가 中衣 즉 鬱多羅僧으로서 上衣이며 五條가 小衣 즉 安陀會로서 下衣이다。

그리고 가로의 線은 長과 短으로 되어 있는데 下衣 五條는 一長一短이고, 中衣 七條는 二長一短이며, 大衣는 三品인데 下品인 九條·一一條·一三條는 二長一短이고, 中品인 一五條·一七條·一九條는 三長一短이고, 上品인 二一條·二三條·二五條는 四長一短이다。 이 袈裟品界를 나타내면 아래의(表一)과 같다。

(表一)

袈裟品界

品界		條	長·短	品
下品	下下品	9	2長1短	下下品
	下中品	11	〃	下中品
	下上品	13	〃	下上品
中品	中下品	15	3長1短	中下品
	中中品	17	〃	中中品
	中上品	19	〃	中下品
上品	上下品	21	4長1短	上下品
	上中品	23	〃	上中品
	上上品	25	〃	上上品

『羯磨疏』에 말하기를

「九條에서 二五條까지 이르는 것은 二五有諸衆生④을 위해서 福田을 짓기 위한 것이며 條數를 홀수로 하고 짝수로 하지 않은것은 沙門의 仁育이 世間의 陽化와 같기 때문이며 長·短은 마치 世間의 밭이랑이 高下가 다름과 같으며 또한 諸有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聖增하고 凡減함을 표시하고 長多하며 短小함을 비유한 것이라」⑤고 하였다。

袈裟의 크기에 대하여는 尺數나 寸數를 규정하지 않고 각각 몸에 맞도록 만들어 입는다는 說과 반드시 制度的으로 어떤 基準이 있어야 된다는 兩說이 있다。

『律』에는

「자기의 몸을 재서 자기몸의 分量에 맞게만 입으면 된다」⑥하였고 또한 『業疏』에는

「옷감을 가지고 어깨에서 부터 땅으로 내려 드린 다음 踝上의 四指로는 衣身을 만들고 남어지는 나누어서 葉相을 만들면 몸에 맞는다」⑦고

하였다。

그런데 十誦이나 僧祇에는 袈裟의 크기에 三品이 있다고 하였고、『薩婆多』에 三衣의 衣量을 말한 것을 보면

「보통키인 사람은 길이(長)는 五肘요、넓이(廣)는 三肘며(一肘는 一尺八寸이니、姬周尺으로 따지면 長이 九尺、廣이 五尺四寸이 됨)、만일 키가 매우 큰사람은 長은 六肘요、廣은 三肘半이며、만일 키가 매우 적은 사람은 長은 四肘요、廣은 二肘半으로 한다」⑧고 하였으며

『四分律』에는

「安陀會는 長이 四肘요 廣이 二肘며(長七尺二寸、廣四尺五寸)、鬱多羅僧은 長이 五肘요 廣이 三肘며(長九尺、廣五尺四寸)、僧伽梨도 역시 그렇다」⑨고 하였다。

여기에서 長短의 單位로 쓰인 肘는 梵語 hasta의 譯語인데 한팔굽이에 해당하는 것이다⑩。인도 文化圈에서 쓰이던 尺度法의 한 단위인데 淸의 工布查布가 번역한『告像量度經解』나 唐玄奘의『大唐西域記』卷第二 및 唐義淨 譯인『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六등에 의하면 두뼘에 해당하는 길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람의 한 키가 四肘 혹은 三肘半이라 하니 四肘說을 기준으로하여 키가 一六八㎝쯤 된다하면 승가리나 울타라승은 長二一〇㎝×廣一三二㎝의 長方形布가 될것이고 안타회는 長一六八㎝×廣八四㎝의 長方形布가 될것이다。

五、法衣의 材料

佛敎에서는 마음에 愛慾과 貪着을 끊고 一念無垢한 解脫의 境地에 나아가는 것이 그 目的이므로 僧侶가 밖으로 몸에 걸치는 法衣의 材料에 대해 소극적으로는 修道의 障害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修道의 增益이 되게 하기 위하여 화려하고 아름다운 衣材의 使用을 制度的으로 적극 제한 하였다。

四分律의 衣揵度에 보면「쥐가 씹은옷、소가 씹은옷、屍體가 입은옷月水의 옷、바람에 날려 찢어진 옷、불에 탄옷、神廟에 버려진 옷」등을 주어다가 꼬매서 三衣를 만들어 입는다고 하였다。

이것이 본래 修行人은 物慾에 超然해야 한다는 佛陀의 精神姿勢에서 착상된 것이나 차츰 敎勢가 擴張되고 時勢가 바뀜에 따라 絹·綿·毛·麻등으로 衣材가 변하였으며 衣材의 구입 방법도 信徒들의 布施에 依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律藏에 있어 衣材의 制限한것을 보면

〈摩訶僧祇律〉과〈善見律毘婆娑〉에는 劫貝衣(古貝)、欽婆羅衣、舸摩衣(驅磨)、憍奢耶衣(句賒耶)、舍那衣(娑那)、麻衣(婆輿伽)「(　)안은 善見律毘婆娑譯名」의 六種衣를 들었고⑪

〈四分律〉에는

憍賒耶衣(蠶絲衣)、劫貝衣(木綿衣)、欽婆羅衣(毛織衣)、舸摩衣(麻衣)譏摩衣(粗布衣)、扇那衣(樹皮織衣)、麻衣(麻布衣)、翅夷羅衣(細布衣)、鳩夷羅衣(赤細布衣)、譏摩羅半尼衣(未見飜譯)의 十種衣를 말했으며⑫

〈佛阿毘曇經〉에는 舸摩衣(발이곱고 부드러운 옷감)、憍奢耶衣(산누에고치로 짜서 만든 옷감)、傍伽衣(准主나무와 古貝나무 꽃의 섬유를 섞어 짜서 만든 옷감)、駱駝毛衣、長毛冗古貝衣(毛絲와 古貝花섬유를 섞어짠 옷감)、粹寐底衣(산누에 고치를 씨로하고 삼모시를 날로 하여 짠 옷감)、阿力多柯衣(古貝花섬유를 짜서 다듬은 것으로 폭신폭신하다)、波兜羅衣(波兜羅樹葉에 붙은 벌레 나무껍질로 짜서 만든 옷감 당나귀털색이다)、高磨利衣(古貝花、憍奢耶、波兜羅三種 섬유로 짜서 만든 옷감)、紙底衣(憍奢耶로 날을 삼고 古貝花를 씨로 삼아 짠 옷감)、阿叛那衣(삼과 古貝로 섞어짠 옷감) 등 十四種은 受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면 衣材의 制限이 摩訶僧祇律과 善見律毘婆娑의 六種衣로부터 四分律의 十種衣、佛阿毘曇經의 十四種衣등의 順으로 차차 弛緩되어 나갔음을 짐작 할 수 있다⑬、

六、法衣의 色相

法衣의 色은 青黃赤白黑의 五正色과 紅碧綠緋紫의 五間色을 피한 뭉겨진 壞色이다。

梵語로는 袈裟요 此云하면 染衣 또는 不正色이다⑭。

〈四分律第十六〉⑮에

「만일 比丘가 새옷을 얻으면 반드시 三種으로 色을 뭉길 것이니 青·黑·木蘭이다。만일 比丘가 青黑木蘭으로 壞色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새옷을 입는 자는 波逸提라」하였다。

그런데 이 三種壞色에 대해〈五分律第九〉와⑯〈僧祇律第十八〉⑰과〈解脫經〉에서는 青·黑 木蘭이라하고

〈十誦第十五〉⑱에는 青과 泥와 茜이라 하고

〈薩婆多毘尼第八〉에서는 青·皂·木蘭이라 하고〈根本有部律第三十九와〈根本薩婆多第十二〉에는 青·泥·赤이라 하고

〈毘尼母經第八〉에는 青·泥·不均色이라 하였다。

以上에서 보면 壞色의 名稱에

青	黑	木蘭	
青	泥	赤	
青	泥	茜	
青	皂	木蘭	
青	泥	不均色	등 五種의 說이 있다。

그러나 三種壞色에 對한 解釋을 보면

道宣行事鈔下에는

「青은 銅青이요、黑은 雜泥요、木蘭은 木蘭나무의 껍질이니 赤黑色이라」하였고

元照資持記下에는

「泥는 곧 黑色이요 棧은 곧 木蘭이라」하였으며

望月佛教大辭典에는

「黑은 泥 혹은 皂요、木蘭은 茜、棧、赤 또는 乾陀 혹은 不正色이라」하였고

織田得能의 佛教大辭典(P、三八七)에는

「一은 似黑이요 二는 似青이요 三은 似赤이니 似黑이란 緇色으로서 黑泥의 色이요 似青은 銅青이요、似赤은 果實의 染色으로서 天竺에서는 乾陀色이라 하고 中國에서는 木蘭이라 하고 日本에서는 丁子香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三種壞色에 대하여 서로 표현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三壞色 이외의 他色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다。

그런데

南傳大藏經第二에는

「새옷을 얻은 比丘는 青色 또는 泥色 또는 黑褐色의 三種壞色 가운데 하나의 壞色만 取하라」고 하였다。그리고 舍利佛問經⑲의

摩訶僧祇部에는「衆經을 勤學하며 眞義을 宣講하여 근본에 處하고 中道에 居하므로 마땅히 黃衣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고

曇無德部에도「이치를 통달하여 중생을 開導、利益하고 殊勝한 法을 발휘함으로 마땅히 黃衣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또한

薩婆多部에는「博通、敏達하여 法化를 引導하므로 마땅히 皁衣를 입어야 한다」하고

迦葉遺部에는「勇猛精進하여 중생을 攝護하므로 마땅히 木蘭衣을 입어야 한다」하고

彌沙塞部에는「禪思로 入微하여 幽密을 究暢하므로 마땅히 青衣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袈裟色을 壞色뿐만이 아니라 黃衣、青衣 등도 着用했음을 볼수 있다。이것은 아마 부처님 당시에는 青黃五綵와 眞紫上色(五間色)은 심신을 현란시켜 修行에 방해되고 화려하여 俗人들이 탐하는 것이라 하여 모두 억제하고 三種壞色만을 使用하게 한것이나 後來에 時

(圖 1) 三衣을 입고 탁발하는 승려(방콕)

代와 地域을 달리하면서 차츰 변형되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오늘날 보는 北方佛敎에서의 赤黃色과 南方佛敎(圖 1)에서의 黃色등이 그 좋은 例이다。

그리고 壞色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十誦律第十五에 「三種壞色이란 것은 靑과 泥와 茜이다。 만일 比丘가 靑衣을 얻었으면 마땅히 二種으로 淸淨히할지니 泥와 茜이요、만일 泥衣을 얻은 사람은 또한 二種으로 淸淨히 할지니 靑과 茜이요 만일 茜衣을 얻은 사람은 또한 二種으로 淸淨히 할지니 靑과 泥요、만일 黃衣을 얻은 사람은 마땅히 三種으로 淸淨히 할지니 靑과 泥와 茜이요、赤衣을 얻은 사람은 마땅히 三種으로 淸淨히 할지니 靑과 泥와 茜이요、白衣을 얻은 사람도 또한 三種으로 淸淨히 할지니 靑과 泥와 茜이다」하였다。

賢首의 菩薩戒本疏(續藏經第六〇卷)에는

「袈裟는 此云하면 不正色이니 靑等의 五色으로 互相和染하여 不正色을 만들므로 壞色이라 한다」하였고

明曠의 天台菩薩戒疏(續藏經第五〇卷)에는

「靑을 空靑、石靑等을 말하며 黃은 즉 黃褐色이요 赤은 乾陀色이요、黑은 屋鹿黑色등을 말하며 紫色은 土色이니 이 五色으로 互相參染하므로 不正色이라 한다」했으며

智旭의 梵網經合註(續藏經第六〇卷)에는

「彌沙塞部을 보니 만일 靑色 옷이면 黑과 木蘭을 點하여 淸淨히 하고 黑衣이면 靑과 木蘭으로서 點하고、木蘭衣이면 靑과 黑色으로서 點하라 하니 지금도 또한 이와같이 해야한다」고 하였다。

法衣의 制度가운데에서 色相의 문제가 가장 다양하여 自來로 諸說이 있다。 이것은 물론 그 자체가 복잡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西域과 中國이서로 언어와 문자가 다르므로 인하여 표현상에서 오는 다소의 차이가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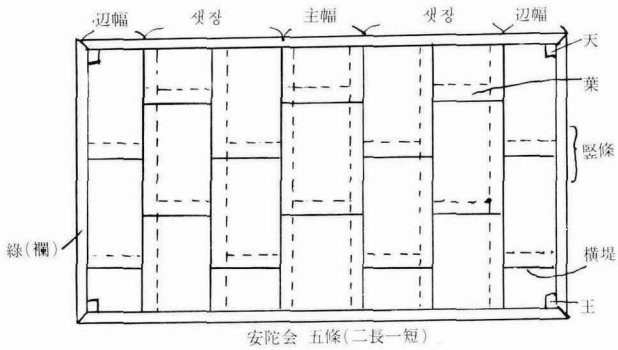
七、法衣의 裁縫法

袈裟는 폭이 길고 츰이 낮은 長方形으로 구성이 된다。 장방형에는 縱線과 橫線이 구획되는데 縱線은 竪條라 하고 橫線은 橫堤라 한다。 또한 條는 一直線의 띨과 같은 상태이고 堤는 各條에 따라 위치를 엇바꾸는 짧은 線으로 만들어 진다。

袈裟는 여러개의 헝겊 조각으로 이어만드는 衣服이므로 먼저 袈裟에 놓일 위치에 맞추어서 가사의 中央線인 主幅과 가장자리의 邊幅과 그 사이의 샛장으로 나눈후 천을 마름질을 하는데 장지 두꺼운 종이로 본을 만들고 그것에 일정한 치수로 시접분을 주어 재단한 뒤 헝겊을 본에 씌워 접고 인두로 다리면 조각 하나가 이루어 진다。

그런데 短의 길이는 보통 길이에 一/二이 되며、袈裟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長二매와 短一매를 연결하는 경우에 二長一短法이라 부르며 이것이 하나의 條를 만드는 방법이다。

各條를 잇는 方法은 中央線인 主幅은 이 양쪽에 이어지는 샛장條의 左右로 덮어박고 그 다음 부터는 左는 左側으로 右는 右側으로 덮어 나가면서 바느질하고 맨가 左右에는 邊幅을 붙인다。 이때 각 條마다 공간이 생기는 것을 葉(表 二)이라고 한다。



(表 2) 鬱多羅僧七條(二長一短)

바느질에 있어 흰색실로 상침을 하고 그 상침을 하는 中間에 몇뜸을 뜨지 않고 通門을 내는데 이것은 條와 堤가 밭이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물이 늘 흘러내려야 한다는 意味가 있어 물꼬를 트는 것이다。보통은 콩이 드나들 정도로 터놓는데 一說⑳에는 上品 袈裟일때는 九개 通門을 내고、中品일때는 七개、下品일때는 五개의 通門을 내어 袈裟의 크기에 따라 差異를 두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佛說袈裟功德經㉑에서도

이 물꼬를 트는 것이 各品마다 틀리는데 上品은 四角이 다 通하고、中品은 左변 上角을 連針하고 그나머지 角은 다 通門을 두고、下品은 右변 上角을 連針하고 그나머지 角을 다 通門을 두라고 하였다。

또한 (通門이 없으면 眼盲報를 받는다고 하였는데)「袈裟는 如來의 上服이며 菩薩의 大衣이니 바느질할때 만일 一通이 없으면 만든 사람과 입는자가 다같이 眼盲報를 받으니 조심하여 針工해야하며、안을 고르게 하지 않고 바느질을 한 사람은 복통을 얻게 되고 조금이라도 바느질을 빼고 하면 蛇報를 받게 되니 잘 살펴보고 하라」고 하였다。이것은 부처님의 法을 說하기 위하여 입는 것이니 만큼 정성을 들여야 함을 의미하는 말인것 같다。

그리고 章服儀에는㉒

「바느질 할때 위아래 부분을 완전히 다 꼬매지 않고 한쪽만 바느질하는것은 그 割相을 표한 것이다」고 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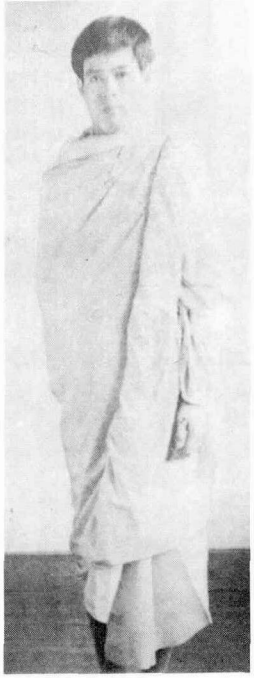
鈔에는㉓

「한쪽만 꼬매고 한쪽을 열어 놓아야 하는데 만일 두쪽을 다 꼬매면 縵衣(沙彌가 입는옷)와 같다。세상에 전해 말하기를 한쪽만 안꼬매는 것은 明孔 또는 漏鹿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며 즉 割相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앞서 밝힌 通門과는 다른 意味로서 袈裟는 割截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本來의 뜻에서 그 割相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나라의 現在 曹溪宗 僧侶의 袈裟가 이 割相을 나타낸것 같다。

袈裟에 各條가 다 이어지면 한장의 布와 같아 지는데 袈裟 네귀퉁이에 조그마한 四角의 천을 덧대고 그 덧댄천 위에는 天·王의 글자를 수놓거나、용「龍」字를 수놓으며、四天王像을 수놓기도 한다。

(圖 2) 偏袒右肩 着裝
「服裝大百科事典」p, 285
東京：服裝文化協會(1975)



(圖 3) 通肩着裝「法衣史」
井筒雅風저(1974), p, 6 雄山閣出版

天王은 佛法을 호위하는 四天王을㉔ 의미하는 것이며 「𑖀」은㉕ 梵字로서 완전하다는 뜻인데 온 세계를 淨化한다는 의미의 眞言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현존하는 袈裟中에 仙岩寺 소장 大覺國師袈裟와 華嚴寺 소장 碧巖大師의 袈裟에서 볼수 있다。

八、法衣의 着裝法

法衣의 착장법은 偏袒右肩과 通肩의 二種이 있다。

偏袒右肩(圖 二)은 左肩에 걸치고 右肩의 어깨를 露出시키는 것으로 이는 諸佛、諸菩薩·長上에 대하여 공경하는 뜻을 표할때나 作務때 이러한 形을 취한다。

그런데 說法할때나 威儀를 갖출때는 通肩(圖 三)으로 입는다。

이렇게 着裝하는것은 印度、오리엔트、그리스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가지는 衣服形態로서 그리스의 독특한 服制인 히마티온(Himation)(圖四)과 로마에 토가(Toga)(圖 五)、인도의 샤—리(Sāri)(圖 六)라고 하는 옷의 着裝法과 같다。이것들은 外被인데 儀禮的인 衣服이다。

그리고 印度에서 便服(襯衣 즉 속옷)으로써의 裳類는 도—티(Dhōti)라고하여 貴賤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입는 기본 의복인데 僧侶들은 도—티나 샤—리에 해당하는 長方布인 涅槃僧(Nivāsana, 內衣裙)을 허리에 둘러감고 腰帶를 매었다。그러나 이 열반승은 승가리에 덮히어 그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涅槃僧(Nivāsana)은 「泥洹僧」「泥縛些那」라고 번역하며 또는 「裙·裙裳·下裙·內衣·裙子」라고도 번역한다。이는 長方形으로 下半身에 直接감는 것이다。

涅槃僧을 입는법은 腹部앞 중앙에 裙幅이 중첩되어 주름을 잡듯이 左右변이 여며지게 하고 여기에 衣帶를 매지 않고 두끝을 서로 여며 꺾어 끼우도록 한다。그러므로 가끔 여민곳이 풀어져 옷이 흘러 내려서 알몸을 노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四分律에 의하면 比丘가 띠를 매지 않고 俗人의 집에 갔다가 열반승

(圖 6) 인도의 샤리
(법련사 현호스님 提供)

(圖 5) 로마의 토가 「History of Costume」 p. 98 BLANCHE PAYNE(1965)

(圖 4) 그리스의 히마티온 「The Book of Costume」 p. 70 MILUA DAVENPORT(1965)

이 풀어져 알몸을 드러내는 망신을 당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佛陀는 比丘가 열반승을 입을 때 반드시 衣帶를 매도록 規定했다。 이는 곧 比丘衣制의 規範이 되었던 佛陀自身도 열반승에 衣帶를 매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示唆하는 것으로서㉖ 그 衣帶역시 불타의 少慾知是하는 衣服觀에 쫓아서 비단이나 아름다운 색 또는 白色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다만 袈裟色으로만 만들되 넓이는 二指、길이는 허리를 세번감는 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이 衣帶는 迦耶藩但郡(Kayavandhana) 즉 腰帶라고 번역 하는데 몸을 매는 物件이란 意味로 涅槃僧의 脫落을 막기 위해서 使用된 것이다。 南方에서는 八物中㉗의 一로 세고 극히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北方에서는 涅槃僧에 끈을 다는 수도 있다。 比丘들은 이 涅槃僧과 승가리를 衣服種類의 基本으로 삼고있다。

여기에 尼僧은 三衣뿐만 아니라 五衣를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女性의 가슴을 가리기 위한 掩腋衣와 어깨를 덮는 覆肩衣이다。

掩腋衣는 僧祇支(Samkakasika)라고도 하며「僧竭支·祇支·竭支·僧却崎·僧脚鼓迦」등으로 번역하는데 덮는 물건이라는 意味가 있다。 입는 법은 左肩으로 부터 오른쪽 겨드랑이에 오게 입으며 三衣밑에 입는다。

現在 캄보디아 僧의 僧祇支는 右脇에 꿰매어 있는데㉘ 이것은 본래는 尼僧의 가슴이 노출되는 것을 防備하기 위해 붙인 것이지만 阿難과 같은 美男僧이 나오므로서 그후 僧尼가 다 같이 一般的으로 使用하였다(圖 七)。

覆肩衣는 漢語에서는 찾아 볼수 있지만 印度語에는 찾아 볼수 없다。 그후 다른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하고 井筒雅風氏는 말하고있다

僧祇支第四十에는

「偸蘭難陀尼大乳 著一僧祇支 於閣上 經行 俗人遙見自謂言 看是從 若水浮瓠 乃至佛言 從今日 後 當作 覆肩衣者 覆肩衣者 襞疊他 覆 肩上 若不作不著 得小罪 不聽比丘高處著 一重僧祇支經行」이라 하여 右側 가슴을 충분히 덮기 위해 右肩에서 부터 僧祇支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으로 左肩과 右肩에 각각 두장의 布를 交叉시켜서 덮는 것이다。 이것이 후에 中國에 傳來하여 이 두옷을 合해서 褊衫이 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圖 7) 各國僧侶의 法服 앞줄 왼쪽부터 태국, 쏘련, 티벳, 중국, 한국, 태국, 한국(W.F.B 방콕에서 : 현호스님 제공)

그리고 尼僧은 安陀會와 같은 의미로 보는 涅槃僧의 兩邊을 꼬매서 통치마처럼 만든 厥修羅衣(Kusūlaka)을 더 입는 경우도 있다。

이 厥修羅衣는「俱蘇羅·厥修洛迦·俱修羅)등으로도 쓰고 裙 또는 下裙 혹은 簡衣㉙라고 번역한다。 比丘尼는 한장의 치마(裙)만으로는 벗겨질 염려가 있어 한장 더 밑에 치마(裙)를 입어 노출을 방지하였던 것 같다。

沙彌는 上下衣 즉 二衣를 입었는데 色은 比丘와 같으나 製度上으로 보면 割截의 條葉이 없는 縵衣을 입었다。

以上에서 말한 三衣와 五衣와 縵衣는 基本法衣로서 부처님이 당초에는 單三衣만을 만들어 입도록 했으나 그후 필요에 따라 僧祇支·涅槃僧과 같은 衣服이 생겨 混用하게 된것 같다。

Ⅲ、中國傳來以後의 法衣

一、法衣의 中國傳來

日本의 佛敎는 韓國에서 傳해졌고 韓國의 佛敎는 中國에서 건너 왔다。그러므로 佛敎의 本産地는 印度지만 東洋에서의 佛敎根源地는 中國이다。中國에 佛敎傳入의 端緖가 열린 것은 훨씬 전이지만 寺院을 建立하고 藏經을 번역하여 제대로 面貌를 갖추기는 後漢明帝 永平年間이다。

文獻에 의하면 明帝永平十年(AD 六七) 蔡愔등이 天竺에 使臣으로 가서 西域僧迦葉摩騰、竺法蘭 二人을 만나 佛像과 佛經을 얻어 돌아 왔다고 하였다㉚。

그러나 中國의 傳統社會에서는 오랫동안 儒敎的인 理念이 精神的基盤이 되어 왔으므로 輸入當時 楚王英이 홀로 佛敎를 좋아했을뿐 一般的으로 별로 歡迎을 못받았으며、魏晉時代에 이르러 玄談의 風이 일어나자 이에 接合하여 불교는 勢力을 떨치고 다시 隋唐朝에 이르러 全盛하였다。

法衣의 中國傳來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蔡愔등의 권유에 따라 中國으로 함께 왔던 摩騰과 法蘭이 沙門服을 입고 있었다㉛고 한다。

이런점으로 미루어 法衣의 中國傳來는 佛敎의 公式傳來와 同時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리고 中國人의 法衣着用時期는 東晉의 釋道安스님이 僧尼軌範佛法憲章을 制定하여 僧制가 확립된 뒤로부터이며 그 以前은 아직 戒律도 傳해 지지 않아서 出家나 受戒法도 없이 행해져 僧人의 威儀가 俗人과 크게 구별이 없었던 것 같다㉜。

二、中國法衣의 特質

印度는 더운 地方이므로 三衣만 가지면 寒暑를 다 지날수 있어 法衣가 곧 衣服의 役割도 하였다。

그러나 法衣가 中國에 傳來된 以後 氣候的인 條件의 差異에 따라 안에 옷을 따로 입고、法衣는 僧侶의 身分을 象徵하기 위해 걸치는 形態로 바뀌었다。

法衣가 實用的인 衣服이 아닌 表象的인 敎服이 되다보니 차츰 그것을 美化하고 또 그에 附隋的인 修飾 내지는 裝飾品이 나타나 자연 中國法衣는 印度의 本制와 다른 여러가지 類型의 特質을 갖게 되었다。

이제 간단히 그 대표적인 경우를 들어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中國에서는 袈裟를 끈으로 매어 着裝하는데 당초 印度의 袈裟는 끈이 없이 몸에 두르는 형식으로 着裝했다。

北魏 大安三年(AD 四五七)의 銘이 있는 佛像에서 끈을 발견하는데 이것이 佛像으로는 가장 오랜것으로서 이때 이미 끈이나 環이 使用된 것이다。이 끈은 裝飾用끈으로서 美化시킨 것을 修多羅라고 하는데 唐에서는 一般的으로 이 修多羅가 使用되었으며 日本 東寺 弘法大師가 請來해온 袈裟에도 이 修多羅가 있다㉝。

또한

袈裟을 偏袒右肩으로 입을때 노출된 右肩를 가리우는 것으로 橫被가 있는데 이것은 通常 袈裟와 같이 緣(襴)을 붙이고、네구석에 摺葉을 붙이고 있다。

「佛制比丘六物圖」의 唐의 道宣律師(AD 六六七)「敎誡律義」에 七條를 입었을때는 반드시 橫被를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즉 이것은 偏袒右肩으로 입을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印度에는 橫被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는것으로 보아 中國에서 만들어 진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것은 없다。

또한

中國에서는 唐의 則天武后(AD 六八四~七〇四)때부터 絡子 즉 挂子 또는 掛絡등으로 불리우는 袈裟가 使用되는데 이것은 元來 安陀會로써 使用되고 있던 것에 끈을 달고 이것을 小形으로 고쳐 禪宗에서 쓰게 한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絡子는 唐代 중엽부터 생긴것으로 목에거는 끈을 威儀

라고 하고, 鉤紐는 環으로 되어 있는데 環이나 威儀가 훌륭하게 된 것은 宋代에 들어서 부터이다。우리나라의 현재 조계종 스님들의 五條袈裟는 이것과 같은 형이다。

1、褊衫(偏衫)과 裙子(裳)

印度 傳來의 被服 三衣다음으로 重要한 것이 僧祇支와 涅槃僧인데 이 중 僧祇支는 左肩에서 겨드랑이로 걸치는 것으로 여기에 右肩으로부터 왼쪽겨드랑이로 걸치는 覆肩衣가 함께 합쳐져서 이 二衣에 깃과 소매가 붙여진 것이 褊衫이다。

宋의 元照律師(AD 一〇八〇 元豊三年)의 〈佛制比丘六物圖〉에는

「後魏時 始加 右袖 兩邊縫合謂之 褊衫截 領開 裾撙存 本相 故知偏衫 左肩即 本祇支 右邊即覆肩也」라 하였고

또한 〈僧史略〉에는

「後魏見 僧自恣 偏衫 右肩 乃施 一邊衣 號曰 偏衫 全 前兩肩衿袖 失祇支之體 自 魏始也」라고 하였다。

以上에서 보면 後魏(AD 三八六~四一九)때 처음으로 左側에 右側을 덧붙여서 兩邊을 합쳐서 褊衫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裙에 있어서는 涅槃僧을 裙·裙子라고 번역하는데 印度에서는 열반승을 입을때 앞 중앙에 모이게끔 주름을 잡으므로 전체에는 주름이 없으나 中國에서는 이것을 더욱 美化해서 全體에 주름을 잡은 것으로 본다。

現在 日本 奈良縣 生駒郡 斑鳩町 中宮寺에는 六~七세기경의 天壽國繡帳(圖 8)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推古天皇 三〇年(AD 六二二)에 죽은 聖德太子의 冥福을 빌기 위하여 太子의 妃 橘大郎女가 만들게 한것이다。太子가 往生한 天壽國의 相을 나타낸 二帳의 繡帳으로 그 당시의 僧侶의 服飾을 연구하는데 좋은 資料가 된다。여기에서 보면 僧侶는 團領의 褊衫과 黃色袈裟와 裙子를 着用하고 있는데 中國과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은 日本도 裙子의 주름을 全體로 하여 美化 했던 것으로 본다。

(圖 8) 褊衫과 裙子를 着用한 모습.
「世界美術全集(9卷)」p. 110 (東京 平凡社)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高麗圖經〉에 僧服에 있어 長袖偏衫과 紫裳을 입는다고 한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褊衫과 裙을 착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구려 무용총 벽화의 승려상에도 裙착용이 나타남)

2、直綴

直綴은 褊衫과 裙子가 中國古來의 俗服과 混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데 直綴의 모양이 深衣와 비슷하다。

深衣는 古代 中國에 있어서 天子·諸侯에게는 平服이었으며 士大夫에게는 朝服、祭服의 다음가는 옷이었고 庶人에게는 吉服으로 사용되었는데 이후 儒家들이 이를 先王의 法服으로서 崇尙하였다[34]。

이 深衣는 上衣와 下裳이 서로 連綴된 옷으로 대개 白布로 만들고 衣四幅裳十二幅을 연접하여 둥근소매와 모난 깃을 갖고 검은선을 가장자리에 두른 일종의 便服인데 이것이 문헌상에 나타난 최초의 기록은 禮記王制篇이다。또한 禮記玉藻에도 나타나며 秦·漢에 이르러서는 〈後漢書輿服志〉에 「天子常服 以通天冠 深衣 或著袍」라 하여 天子의 常服에

深衣와 袍을 병용하였다고 하였는데、漢六朝를 거쳐 隋唐에 들어 一般民衆 服裝에 영향을 미쳐 唐代에는 주로 士人계급에서 착용하였고㉟ 唐末이 되어 僧服으로서 認定 된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直綴을 長衫이라고㊱ 하는데 문헌상으로는 朝鮮初期 世宗六年(一四二四) 二月에 日本에 僧衣를 賜與하는 品目에 「藍羅長衫一件」이라고 하는데서 長衫의 着用이 나타나며 또한 신라말 고려초의 木造像인 희랑조사像에 보이는 옷도 袍아니면 直綴인에 앉아있는 모습에서 완전히 무릎을 가릴정도의 넓이라면 袍보다는 直綴인 長衫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것 같다。이런점으로 보면 唐의 制度를 받아들여 新羅末期부터 使用된 것이 아닌가 추측 되는데 여기에 〈高麗圖經〉의 僧服이 偏衫과 裳인 것을 보면 長衫은 고려 훨씬 후에 입지 않았을까 하는 견해와 한편으로는 함께 並用하여 着用하지 않았나 하는 새추측이 간다。

Ⅳ、韓國의 法衣

一、佛敎의 傳來

우리나라에 佛敎가 傳來한 것은 三國史記에 의하면 高句麗에서는 제一七대 小獸林王二年(AD 三七二)에 秦王苻堅이 승려 順道와 佛經과 佛像을 보내와 佛敎가 始作되니 이것이 海東佛敎의 初傳이 되고

百濟에서는 枕流王 元年(三八四)에 胡僧 摩羅難陀가 東晉으로 부터 오자 王이 이를 宮中으로 맞아 禮敬하여 佛法이 始作되었으며

新羅는 法興王 一五년(五二八)에 비로소 佛法이 일어 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佛敎가 三國에서 正式으로 國家的인 公認을 받은 時期를 밝힌것에 지나지 않으며 실상은 이보다 훨씬 앞서 佛敎의 信仰이 우리나라 民間에 들어와 流行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例로는 海東高僧傳의 「소수림왕 즉위년 보다 五년전에 죽은 支遁

(圖 9) 쌍영총벽화의 僧侶
「韓國美術全集」 卷 4 金元龍 p.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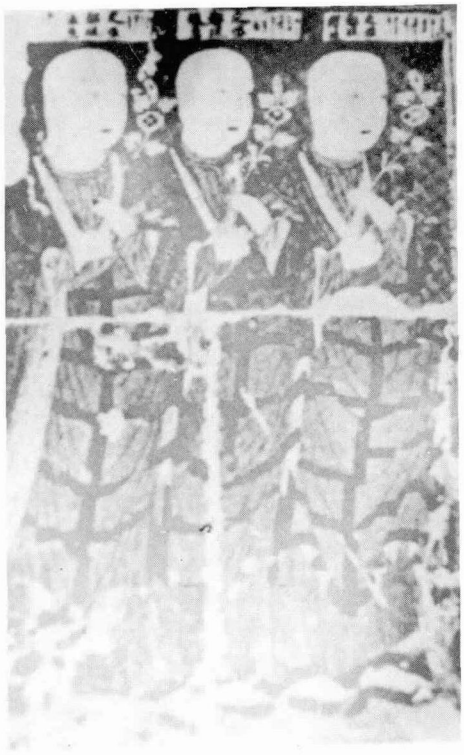
(圖 10) 무용총 벽화의 僧侶 p.59.

道林(AD 三一四~三六六)과 高句麗道人과의 사이에 書信 來往이 있었다는 說이나 魏僧 掘魔의 傳說上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三國時代 初般의 社會상황은 바로 神道思想의 崇天·敬神·祭祀山川등 自然崇拜信仰이 遺傳하여 재사, 가심, 풀이, 굿등이 行하여 지던 때로서 당시 서로 國境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 中國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佛教的 信仰이 盛行하고 있었으니, 齊, 佛供, 念佛등의 祈福的 信仰이 內包된 佛教는 쉽게 우리의 神道思想과 接合하여 그 흐름을 타고 침투할 수 있었을 것이고 自然을 崇拜하고 自然에 祈福하는 精神이 몸에 밴 民衆은 쉽게 佛教信仰을 受容하여 그 教理를 信奉하게 되었던 것같다.

그러므로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한 경위는 輸入이 아니라 침투의 形式을 취했고 學術的인 面보다 宗教, 信仰的인 面이 먼저 받아 들여졌으며 平民을 통해서 王家에 확대 되었다고 보여진다.

二、高句麗의 法衣

三國中 佛教가 맨 먼저 公傳된 나라가 고구려이다.



그런데 앞서도 言及한 바와같이 불교의 학술적인 면보다 신앙적인 면이 먼저 민간을 통하여 전래되었다고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 불교의 教理보다는 불교의 制度가 먼저 발달했으리라고 推定할 수 있다.

法衣는 바로 불교의 制度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선적인 것으로서 韓國에 있어 法衣의 傳來와 着用은 상당히 빨랐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法衣의 傳來와 着用의 정확한 年代는 알길이 없으며 다만 高句麗 古墳 雙盜塚과 舞踊塚의 壁畵에 나오는 僧侶의 人物을 通해서 當時의 法衣를 엿볼 뿐이다.

고구려말 五~六C頃의 것으로 推定되는 雙盜塚 벽화중의 主室東壁 人物行列圖에 僧侶(圖 9)가 錫杖을 쥐고 削髮에 偏袒右肩으로 法衣를 着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法衣가 印度, 中國, 우리나라의 어느나라의 형태인가에 대하여서는 확실치 않다.

或者는 印度式袈裟을 착장하였다고 보는데 筆者가 보기에는 印度式袈裟을 직접 수입해서 입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좀 더 美化된 中國式袈裟

(圖 11) 高昌ベゼリック寺院遺跡의 壁畵 (5C~10C頃) 左：中國僧, 右：印度僧, 「法衣史」 井筒雅風저 (1974). p.29.

가 아닌가 한다。

그것은 고구려는 佛敎를 받아 들인 이후 初期에 奏僧의 많은 往來가 있었을 것으로 法衣 또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中國僧의 袈裟에 條數가 明白히 그려져 있는 것과 條數가 전혀 없는 印度僧의 袈裟가 대조적으로 보인점으로 미루어도 알 수 있다(圖 十一)。

또한 「舊唐書」 고구려조에 고구려王服은 五采로 염색되어있음을 말하고 있고 「翰苑」 고구려조에는 『高麗記云 其人亦造錦紫地纈文者 爲上 次有五色錦』이라 하여 고구려 사람은 비단을 직조하되 자지힐문을 최상으로 삼고 오색금을 다음으로 삼는다고 하였다㊲。

以上으로 볼때 고구려 벽화에 나온 僧侶의 袈裟는 걸친 모습의 유연성으로 보아 비단임이 틀림없고、布의 이어붙임이 뚜렷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色으로서 표현은 되고 있다。 즉 紅袈裟에 條葉은 靑色으로 된 화려한 비단 袈裟로서 이 法衣의 길이나 입은 모습으로 보아 大袈裟가 아닐까 생각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僧侶가 입고 있는 속의 옷은 印度에서 보이는 일반인의 것은 당연한 일일것이다。

袍에는 腰襞을 使用하지 않고 一般的으로 帶를 썼으며 領은 다같이 直領交衽式이고 襈(緣)은 襦에 있어서와 같이 袖口、領、襟、裾에 까지 둘리운것이 보인다㊳。 이 僧侶가 입고 있는 黑色袍는 이러한 襈을 볼수 없는 데 이것은 사치를 피하고 좀 더 검소한 모습을 보인것 같으며 大袖狀임을 보아 僧侶의 位置를 짐작케 한다。

옷은 도티나 샤리도 아니고 僧侶가 입는 下衣인 열반승(裙)도 아니다。 이것은 中國의 袍를 直輸入한 양식이 아닌가 한다。 고구려에는 袍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없으나㊴ 고분 벽화에는 着袍人物像이 많이 나타나 있다。 貴人의 袍는 大袖狀임에 비하여 低級者의 袍는 대체로 窄袖狀인데 袍는 防寒的 意義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儀禮的 意義가 더 많이 作用 되었던 것이니 만큼 차이를 둔 그리고 僧職은 三國時代에 있어서 僧團 내면을 알만한 자료가 없고 다만 新羅에 있었던 敎團統制의 僧職으로 國統(寺主)·大書省·小書省·大都唯那·都唯那娘들을 볼수있는데㊵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僧職이 꽤 높았을 것이다。

以上으로 쌍영총의 僧侶는 大袖狀의 黑色袍위에 偏袒右肩으로 紅色과 靑色으로 彩色된 大袈裟를 입고 錫杖을 쥐고있는 점으로 보아 높은 위치에 있는 僧侶 즉 승직으로 보면 國統에 준하는 大道師가 儀式에 임하기 위하여 입은 法衣로 볼수 있다。

또한 舞踊塚 主室北壁 接見圖㊶에서도 의자에 앉아있는 僧侶인(圖 一〇)듯한 二人의 削髮男子를 볼수 있다。

이 승려들의 옷은 佛像式의 納衣와 裙을 입은것으로 보는이도㊷ 있는데 筆者가 보기에는 領에 갈색의 襈이 있는 直領交衽式의 黑色袍에 안에는 團領의 內衣를 입고(가슴중앙에 선이 있음) 袍아래에는 잔주름이 있는 裙을 입어 襦袴制가 아닌 襦裙制의 服飾인듯 하다。

또한 袈裟를 袍위에 입었을 텐데 뚜렷이 나타난것은 없고 다만 손을 가지런히 모은 僧侶에게서 黑色袍 아래 부분이 좀더 넓게 펼쳐져 있고 또한 색채가 좀 더 짙은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으로서 袈裟를 두른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뿐이다。

그리고 두 승려는 끈이 달린 履을 신고 있다。

(註)

① 四分律 卷四〇 大正新修大藏經 第二二卷
② 李智冠:「律藏比較硏究」P、一二五 시울 대각회출판부(一九七六)
③ 四分律 卷四〇 大正新修大藏經 第二二卷
④ 衆生이 나서 죽는 迷의 存在를 二五種으로 나눈 것、색계、욕계、무색계 등 三界와 六道를 말함。
⑤ 新修大藏經 九拾
⑥ 新修大藏經 九拾
⑦ 前揭書
⑧ 〃
⑨ 〃

⑩ 崔完秀 :「간다라 佛衣攷」 P、八四、佛教美術、東國大博物館
⑪ 前揭書
⑫ 李智冠 :「律藏比較研究」 P、一二五 서울 대각회출판부 一九七六
⑬ 崔完秀 :「간다라 佛衣攷」 P、九一、佛教美術
⑭ 智旭의 梵網合註
⑮ 新修大藏經 二二券 P、六七六
⑯ 前揭書 P、六八
⑰ 〃 P、三六九
⑱ 〃 券二三、P、一〇九
⑲ 新修大藏經 券二四 P、九〇〇
⑳ 袈裟匠 박송운·유의법스님
㉑ 金東湖 : 佛心과 修行功德 P、四六五~四七一、景仁文化社(一九七二)
㉒ 新修大藏經 九〇
㉓ 前揭書
㉔ 운허용하 :「불교사전」 P、三八六、P、六二九
㉕ 前揭書
㉖ 崔完秀 :「간다라 佛衣考」 P、一〇一、佛教美術
㉗ 北方佛教의 六物 : 1、僧伽梨、2、鬱多羅僧、3、安陀會、4、鉢盂、5、座具、6、漉水囊 南方佛數의 八物 : 1、僧伽梨、2、鬱多羅僧、3、安陀會、4、針多羅、5、漉水囊、6、腰帶、7、除髮刀、8、針糸
㉘ 井筒雅風 :「法衣史」 P、二四 東京雄山閣出版(一九七四)
㉙ 有部尼陀那에「歐蘇羅迦 此譯爲裔女裙也 所圖之君郎是裔裙也 雖是爲尼制而可通用男子」
㉚ 張元圭 :「中國佛教史」 P、一八(一九七六)
㉛ 前揭書 : P、一七
㉜ 井筒雅風 :「法衣史」 P、三六 東京雄山閣出版(一九七四)
㉝ 前揭書 : P、四二
㉞ 김인숙 :「深衣考」 服飾創刊號、韓國服飾學會(一九七七)
㉟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P、一九一、台北
㊱「佛教辭典」 P、七六一
㊲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고대편—P、一五四、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一九七八)
㊳ 李如星 :「朝鮮服飾考」 P、一三三 서울백양사(一九四七)
㊴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고대편— P、八八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一九七八)
㊵ 이운허 :「불교사전」 P、四三 서울불시보급사(一九六一)
㊶ 金元龍 :「韓國美術全集」 券四、P、五九、서울 동화출판공사(一九七四)
㊷ 前揭書 P、一四二

世宗大學家政學科 教授